

빛고을창업스테이션, 창업기업 후원군 ‘든든’

NEWS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투자사·지원기관 등 30개사 입주…경영 등 상담·공유
전용펀드 조성·투자챗봇·IR·밋업 열어 실투자 유도

호남권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광주역 창업밸리’의 핵심시설이자 초기창업 지원시설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이하 스테이션)’에 창업과 지원기관 30곳이 입주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역 창업밸리’의 첫 번째 핵심시설이자 초기창업 지원시설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 스테이션’에 창업기업 29곳과 지원기관 1곳이 입주했다.

또 공유 오피스 공간 등에 투자사 30여 곳이 상시 머물고 입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파트너사가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모집에 참여했다.

오픈이노베이션과 글로벌 진출, 액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파트너사를 모집한 결과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창업 지원기관 14개사가 접수했다.

스테이션은 광주역 인근 부지에 총 공

사비 350억원을 투입해 지상 5층(연면적 8950㎡) 규모로 지난해 12월 준공했다.

창업기업 전용 사무공간 41개실, 투자전문기관인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등 투자기관 전용 공간 5개실 등으로 구성됐다.

각 공간의 전용면적은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45~102㎡로 구축됐으며 공유 오피스 지원공간, 대·소회의실, 다목적홀, 카페테리아, 오픈 라운지, 옥상정원 등 창업지원을 위한 공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광주시는 창업기업이 스테이션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설명회(IR), 밋업(Meetup), 글로벌 진출 등 체계적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전용펀드를 조성, 운용하고 매월 투자챗봇을 개최해 입주기업이 실질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역량을 보유한 파트너사 37개사를 선정해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공동 협업모델 발굴과 기술실증(PoC) 기회를 제공한다.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위해 글로벌 현지와 전문역량을 보유한 파트너사를 선정,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지역 창업자들의 스테이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창업자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역 유휴부지에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개선해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광주역 창업밸리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복합 허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경제적 혁신타운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 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역현안의 대선공약과 국정 과제 채택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경관작물 재배하면 ha당 최대 170만원”

전남도, 농촌 경관보전작물제…내달 15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경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경관보전작물제의 2026년 사업 신청을 5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관보전작물제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군수와 마을 단위 경관보전협약을 하고, 지급 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창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의 경우 50ha다. 주요 지원 내용은 경관작물의 재배·관리

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해 경관작물 ha당 170만원, 준경관작물 ha당 100만원, 준경관초지작물 ha당 4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을 바라는 농업인 등은 마을 단위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보전작물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 농정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지역축제·농촌관광 등 연계 추진 실적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 도전하세요”

도, 25일까지 청년마을·마을기업 접수…최대 4000만원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재) 함께일하는재단의 협업사업인 ‘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 대상 마을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은 지역 새마을금고와 청년조직이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성장을 도모하는 동반성장 사업 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에서 최종 선정된 10개 팀에 최대 4000만원의 사업과 자금을 지원하며, 우수 수행팀에 추가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행안부 지정 청년마을이나 청년마을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5일 오후 3시 30분까지 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 공식 누리집(https://mgse.co.kr/nanoom/notice)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30일까지 적격심사, 5월 9일까지 서류심사로 진행된다. 이를 통과한 단체를 대상으로 5월 23일까지 대면 심사가 이뤄진다. 선정 결과는 5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지역 새마을금고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동 브랜드 개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사회공헌 모델 개발 등 지원 유형에 적합한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청년마을기업이란 청년이 주축해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이다. 회원 중 지역 주민을 5명 이상 포함하고, 청년회

원 비율이 30~50%인 마을기업이다. 젊고 유능한 청년이 참여해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청년마을기업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마을기업은 지역주민 비율 50% 이상, 자부담 비율 10% 이상으로 완화 적용을 받으며, 마을기업 지정 심사 및 각종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김준철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전남지역은 사회경제적 기업과 청년 창업 지원이 활발한 지역이지만 지난해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며 “올해는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AI 생중계

전국규모 체육대회 최초…실시간·다시보기 가능

전남도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해 목포종합경기장을 포함한 20개 시·군 58개 경기장에 총 818회선, 681대의 통신시설을 구축, 원활한 경기 운영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KT를 주관 통신사업자로 선정, 경기장 실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목포종합경기장에는 선수단과 관람객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이동통신 기지국과 공개형 대용량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다. 또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통신망을 이원화하고, 기지망을 분리 구축해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AI 스포츠 중계방송을 처음으로 농구경기에도 도입해 생중계한다. AI 기술로 촬영된 경기 영상은 네이비 스포츠, 유튜브, OTT어플에서 실시간 다



시보기가 가능하다. AI 생중계는 전국 규모 체육대회 중 최초다.

모든 정보통신 인프라는 대회 2일 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대회 1일 전부터는 KT와 합동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 시민 평생건강 프로젝트 추진

국민디자인단과 자치구 걷기사업 통합·재설계

광주시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실현을 위해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시민 평생건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민디자인단은 정책 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공무원·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정책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해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기획·설계하는 국민참여형 정책모델이다.

광주시는 지난 2월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2025년 공공서비스 디자인 지원과

제로 ‘광주시민 평생건강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이달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컨설팅 등을 지원 받는다.

‘광주시민 평생건강 프로젝트’는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생활화하고, 자치구별로 추진되던 걷기 프로그램을 광주시 차원에서 통합·재설계해 광주만의 특화된 건강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광주시는 회의, 토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시민 걷기 프로그램(행사)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시민 요구를 분석하고, 자치

구별로 추진 중인 다양한 걷기 관련 사업을 리모델링해 광주시 특화사업을 설계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역점 추진 중인 ‘대·자·보 도시’ 전환에 필요한 실천적이고 지속 가능한 걷기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보행자 입장에서 정책을 디자인하는 만큼 시민체감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디자인단은 시민과 함께 정책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행정혁신의 실천 사례”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걷기 좋은 ‘대·자·보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특화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실금기
공기정화실금기
공기청정기
공기순환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탈

공기청정실금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탈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